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김민희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kmh@kiep.go.kr, 044-414-1522)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차 례

1. 스리랑카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와 배경
2. 주요 원인
3.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 최근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채무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 [대외채무] 스리랑카의 외채는 2021년 3/4분기 511억 달러로 GDP의 62%까지 증가했으며, 이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9년도 대비 3%p 증가한 18%를 기록함.
 - [외환보유고] 2018년 4월 사상 최고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1월 10억 달러까지 급감한 이후 2022년 1월 20억 달러까지 회복함.
 - [인플레이션]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디폴트 우려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리랑카의 국가 신용 등급을 각각 CCC+ → CCC(2021.12.18), CCC → CC(2022.1.12)로 하향 조정함.
- ▶ 스리랑카 경제 불안정성의 확산에는 국채발행 증가, 관광산업 침체, 농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스리랑카는 인프라 개발 및 기존 외채 상환을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2019년에만 44억 달러 상당의 국채(ISB)를 발행함에 따라 외채가 급격히 증가함.
 -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관광산업은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하였으며, 이에 2021년의 관광수입은 2018년 대비 약 94% 감소한 2억 6천만 달러에 그침.
 - 2021년 도입된 유기농업 정책은 생산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져 2021년 10월 주요 식료품의 평균 도매가가 4~24%가량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 수출입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 ▶ 스리랑카 정부는 다방면의 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위기는 경제 구조적인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대외채무 증가 △루피화 약세 등의 구조적인 취약성 문제가 지속 대두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관광업 침체 및 해외송금 유입액 감소 등은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만으로 신속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
- ▶ 한국은 ODA, 직접투자 등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온 가운데, 스리랑카 경제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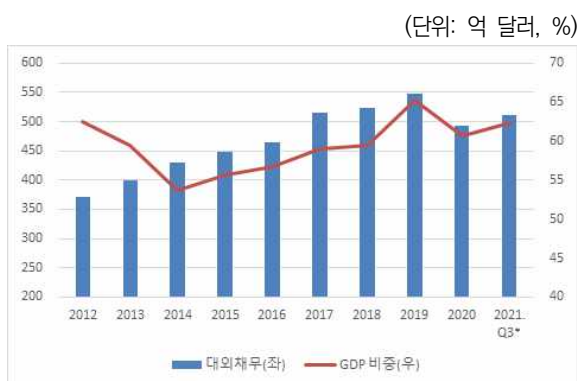
1. 스리랑카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와 배경

가. 불안정성 확대

■ 최근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채무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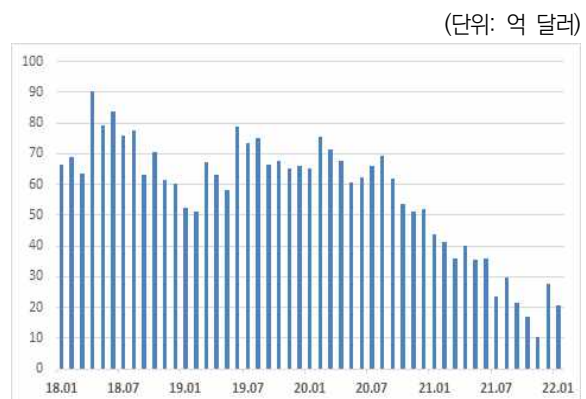
- [대외채무] 인프라 개발 관련 차관 도입과 기존 외채 상환을 위한 국채발행 등으로 스리랑카의 외채는 지속 증가하여 2021년 3/4분기 511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2~26년 지출해야 할 외채상환금은 총 260억 달러에 달함(그림 1 참고).¹⁾
- GDP 대비 대외채무 비중은 2014년 54%에서 2019년 65%까지 급증한 이후 소폭 감소했으나, 2021년 3/4분기 62%로 상승
- [외환보유고] 2018년 4월 사상 최고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2년 1월 2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2021년 11월은 1993년 4월 수준인 10억 달러까지 급감함(그림 2 참고).
- 2021년 9월 기준 스리랑카의 단기외채는 약 93억 달러이며, 총 외채 중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5%에서 2021년 3/4분기 18%로 3%p 상승함.²⁾
- 외채상환부담률(DSR: Debt Service Ratio)은 2020년 기준 33.5%로, 2019년 29.7%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
- 이러한 상황으로 디폴트 우려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리랑카의 국가신용 등급을 2021년 12월 18일과 2022년 1월 12일에 각각 CCC+ → CCC, CCC → CC로 하향 조정함.³⁾

그림 1. 대외채무 및 GDP 대비 외채 비중



주: 2016년 GDP 기준, * 2021년 3/4분기 통계까지 발표됨.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2. 1. 25).

그림 2. 외환보유고



자료: CEIC(검색일: 2022. 1. 25).

1) FitchRatings(2022. 1. 17), "Correction: Fitch Downgrades Sri Lanka's Long-Term Foreign-Currency IDR to 'CC'"(검색일: 2022. 1. 25).
2) 단기외채 규모, DSR은 CEIC 통계, 단기외채 비중은 스리랑카 중앙은행 통계를 참고하여 작성(검색일: 2022. 2. 10).
3) CNBC(2022. 1. 24), "Sri Lanka's central bank governor says country does not need IMF relief amid inflation concerns"(검색일: 2022. 1. 25).

- [인플레이션] 공급 불안정과 수요 확대가 전반적인 물가상승 배경으로 작용한 가운데,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o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2021년 12월 전년동월대비 21.5%를 기록하며 전체 물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특히 쌀과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오름(그림 3 참고).⁴⁾
- o 스리랑카 중앙은행(CBSL)은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위해 2022년 1월 기준대출금리(SLFR: standing lending facility rate) 및 기준예금금리(SDFR: standing deposit facility rate)를 2021년 8월에 이어 6.5%, 5.5%로 각각 0.5%p 추가 인상함(그림 4 참고).⁵⁾

그림 3. 물가상승률

(단위: %)



주: 2013=100, NCPI 기준.
자료: CEIC(검색일: 2022. 2. 7).

그림 4.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자료: CEIC(검색일: 2022. 1. 25).

나. 배경

- 2019년 4월 부활절 테러 이후 국방부 장관을 지낸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가 같은 해 11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⁶⁾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과 국내 록다운이 반복되면서 경기가 침체됨(그림 5와 표 1 참고).

- [경제성장률] 2020년 1/4분기와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8%, -16.4%를 기록했으며, 2021년 1/4, 2/4분기는 전년도 저성장기에 대한 기저효과 및 백신 보급을 바탕으로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됐으나 3/4분기 -1.5%로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o 2020년 2/4분기 농업, 광공업, 서비스업은 각각 -8.2%, -23.1%, -12.9%로 큰 폭의 역성장세를 보임.
- o IMF는 2021년 스리랑카의 실질경제성장률을 4.0%에서 3.6%로 하향 조정함.⁷⁾

4)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자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 8월 30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가격 상한제 등을 실시하며 물가 안정화에 주력함 (스리랑카 전체 CPI에서 식료품은 41%, 식료품 제외는 59%의 비중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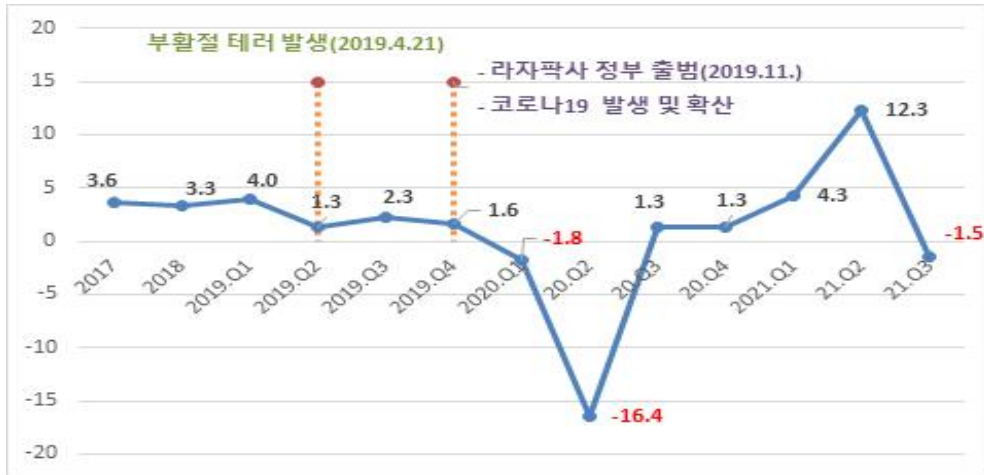
5) 스리랑카 중앙은행(2022), Monetary Policy Review, No. 1.

6) 2019년 4월 21일 수도인 콜롬보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약 25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이로 인해 안보에 관한 불안감이 높아졌으며, 스리랑카 인민전선(SLPP)의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국가안보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높은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됨. 전 스리랑카 대통령을 역임한 마하디 라자팍사와는 친형제 관계로, 당선 시 형의 친중정책을 이어 더욱 강한 친중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윤지현 (2019), 「스리랑카, 라자팍사 대통령 취임으로 친중외교 강화 전망」, 동향세미나 1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 IMF(2021),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1*.

그림 5. 스리랑카의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CEIC,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2. 2. 3).

표 1. 스리랑카의 실질경제성장률

(단위: %)

구성요소 (비중)	2019					2020					2021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농림어업(8)	5.7	3.1	2.6	-5.8	1.0	-6.5	-8.2	3.1	1.3	-2.4	6.1	7.5	1.7	
광공업(28)	3.9	1.7	3.3	1.3	2.6	-7.9	-23.1	0.6	1.3	-6.9	5.5	22.1	-2.1	
서비스업(64)	4.0	0.7	1.8	2.4	2.2	2.9	-12.9	2.1	1.9	-1.5	3.0	7.5	-1.6	
소비지출 (79)	민간소비	7.4	2.6	1.1	1.0	3.0	3.2	-22.9	5.9	-0.1	-3.0	9.1	17.5	-
	정부지출	-3.0	10.7	13.4	31.1	13.0	1.2	9.8	3.2	3.2	4.4	3.9	-0.6	-
총자본 형성(29)	총고정 자본형성	-1.9	-5.5	7.2	11.4	2.7	0.9	-19.9	-9.1	-8.6	-9.1	5.7	22.1	-
	수출입 (-8)	수출(18)	11.6	10.7	-1.7	8.4	7.2	-16.5	-31.2	15.6	-5.6	-9.6	10.8	55.8
	수입(26)	-15.4	-8.6	-1.5	3.1	-5.8	-1.1	-25.4	-6.7	-12.9	-11.4	9.2	37.1	-

주: 2010년 기준가격,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구성요소의 GDP 비중은 2020년 기준, 2021년 3/4분기는 잠정치.

자료: 스리랑카 통계청(검색일: 2022. 2. 3).

- [교역] 스리랑카의 교역은 만성적인 적자구조로, 식품, 생활용품과 같은 필수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음(그림 6 참고).⁸⁾
 - 2019년 기준 식료품 수입은 전체 소비재 수입의 36%를 차지하며, 최근 설탕, 유제품, 곡물, 의약품 등의 수입 가격이 급등하여 사회적 불안이 고조됨.⁹⁾
- [환율]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구조에 2018년 미국의 긴축정책으로 외국인투자 자금이 유출되면서 2019년 미국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급상하였으며,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수입 및 해외송금액 축소

8)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 품목은 차(茶), 천연고무, 코코넛, 섬유 식물류, 고무 제품, 보석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식음료, 식음료를 제외한 소비재, 유류, 직물, 밀과 옥수수, 기계류 등이 있음(스리랑카 중앙은행(2021), *Annual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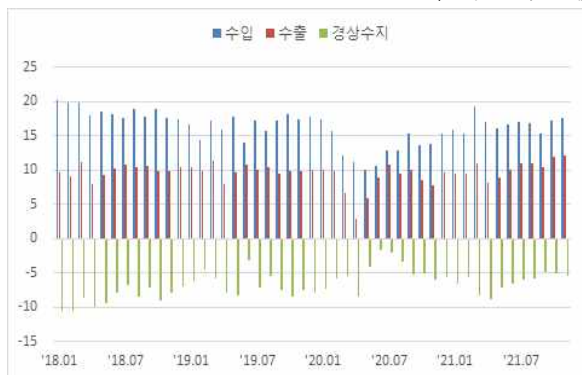
9) ALJAZEERA(2021. 11. 17), "As food and energy prices soar, Sri Lankans go without"(검색일: 2022. 2. 10).

로 외환보유고가 감소해 루피 환율은 2021년 8월 31일 사상 최고치인 210을 기록함(그림 7 참고).

- 루피화 가치는 2018년 1월 평균 1달러당 153.86에서 2019년 1월 평균 181.97로 18% 하락
- [실업률] 2016~19년까지 4%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2020년 5.5%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 1/4분기에는 5.7%까지 상승하였음(그림 8 참고).
- [코로나19 동행] 2020년 1월 27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2022년 2월 9일 기준 누적 확진자는 전체 인구의 약 2.9%인 62만 3,248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치사율은 2.62%(누적 사망자 1만 5,692명)로 세계 평균(1.42%) 및 인도(1.19%)보다 2배 정도 높음.¹⁰⁾¹¹⁾
- 수도 콜롬보를 포함한 서부지역의 확진자 수는 스리랑카 전체의 58%를 초과하며, 2월 9일 기준 접종 완료자는 총 1,680만 981명으로 전 국민의 약 78%임.
- 남아시아 주요국 대비 스리랑카의 인구 백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는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2022년 2월 9일 기준 58명을 기록하며 인도(48명)와 방글라데시(48명)를 상회함(그림 9 참고).

그림 6. 교역 및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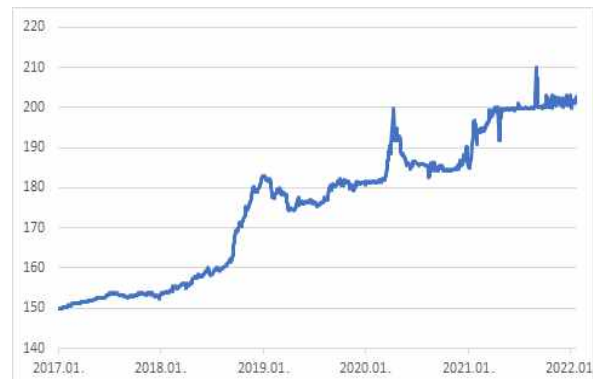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2. 2. 3).

그림 7. 환율 추이(달러당 스리랑카 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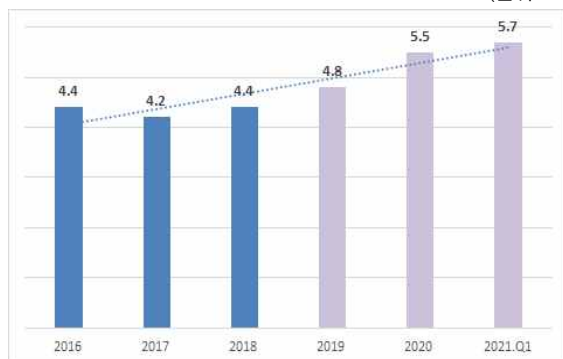
(단위: USD/LKR)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2. 2. 3).

그림 8.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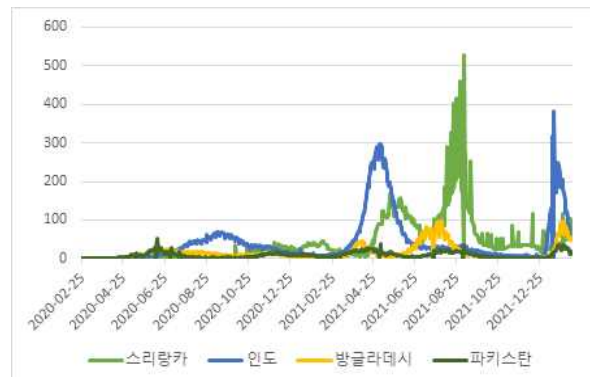
(단위: %)



자료: 스리랑카 통계청(검색일: 2022. 2. 3).

그림 9. 남아시아의 코로나19 추이

(단위: 명)



주: 인구 백만 명당 일일 확진자수.

자료: Ourworldindata(검색일: 2022. 2. 10).

10) 스리랑카의 총인구는 약 2,157만 명임.

11) <https://hpb.health.gov.lk/covid19-dashboard/>(검색일: 2022.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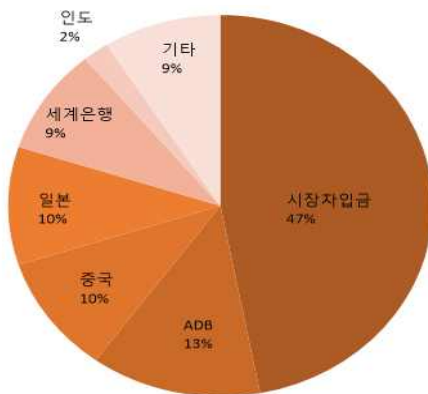
2. 주요 원인

■ 스리랑카의 경제불안은 2019년 부활절 테러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를 시작으로 △인프라 개발, 국채발행 등으로 인한 대외채무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 침체 및 해외 근로자 송금액 감소 △유기농법 시행에 따른 농업 생산 감소 및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스리랑카 외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한 차관 도입, 기존 외채상환을 위한 국채발행 등이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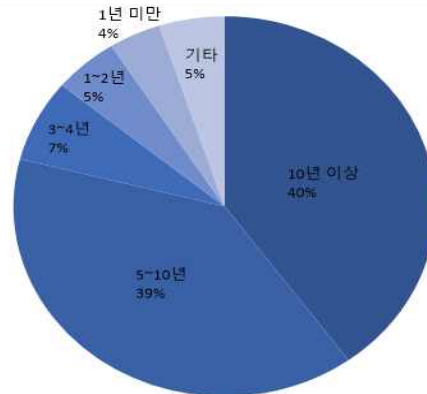
- 2021년 4월 기준 스리랑카의 대외채무는 △국채 등을 포함하는 시장차입금(47%) △ADB(13%), 세계은행(9%) 등 기관으로부터의 차관 △중국(10%), 일본(10%) 등으로부터의 양자차관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림 10 참고).
- 총외채 중 만기가 10년 이하인 채권이 60%를 차지함(그림 11 참고).¹²⁾
- 스리랑카는 항구, 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총 35억 달러의 대중국 부채를 보유함.¹³⁾
- 일각에서는 스리랑카 내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으로 인해 스리랑카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는 비판을 제기함.¹⁴⁾¹⁵⁾

그림 10. 주요 채권국 및 기관 비율(2021년 4월 기준)



자료: 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Government of Sri Lanka, "Foreign Debt Summary"(검색일: 2022. 1. 27).

그림 11. 대외채무 만기별 구성(2021년 4월 기준)



자료: 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Government of Sri Lanka, "Foreign Debt Summary"(검색일: 2022. 1. 27).

12) 1997년 중소소득국가로 진입한 이후 스리랑카의 대외채무 구성은 '1% 이하의 이자율과 25~40년 만기 등의 조건으로 제공받던 양허성 차관 중심에서 '6% 이상의 이자율(연 2회 지급)과 5~10년 만기 조건 상업적 차입(Commercial Borrowings)' 중심으로 바뀜.

13) 35억 달러는 중국이 보유한 스리랑카 중앙은행 및 국영기업 발행 채권 등을 제외한 순수 양자차관 금액임(Wsj(2022. 1. 18), "China's Lending Comes Under Fire as Sri Lankan Debt Crisis Deepens"(검색일: 2022. 2. 11)).

14)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스리랑카 내에서 콜롬보 항구도시 개발, 마탈라 국제공항 건설을 포함한 도로건설, 에너지, 물관리 및 위생, 도시개발, ICT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사업을 추진함(Chathamhouse(2020. 3. 24), "Chinese Investment and the BRI in Sri Lanka"(검색일: 2022. 2. 11)).

15) 2017년 스리랑카는 외채 부담으로 인해 함반토타 항구 지분의 70%를 중국 무역항만공사(CMPort)에 99년 동안 임대하는 조건으로 11억 달러를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함(Chathamhouse(2020. 8. 19), "Debunking myth debt trap diplomacy"(검색일: 2022. 1. 19)).

- 스리랑카는 기존 외채 상환을 위해 대규모 국채(ISB)를 지속 발행해온 가운데, 향후 10년 내 만기가 예정된 국채는 125억 5천만 달러임(표 2 참고).

표 2. 국채(ISB) 발행 및 만기 현황

발행연도	금액(백만 달러)	이표 이자율(%)	기간(년)	만기
2012	1,000	5.875	10	2022년(7월)
2015	650	6.125	10	2025년
	1,500	6.85	10	2025년
2016	1,000	6.825	10	2026년
2017	1,500	6.2	10	2027년
2018	1,250	5.75	5	2023년
	1,250	6.75	10	2028년
2019	1,000	6.85	5	2024년
	1,400	7.85	10	2029년
	500	6.35	5	2024년
	1,500	7.55	10	2030년

주: 2019년 이후에는 발행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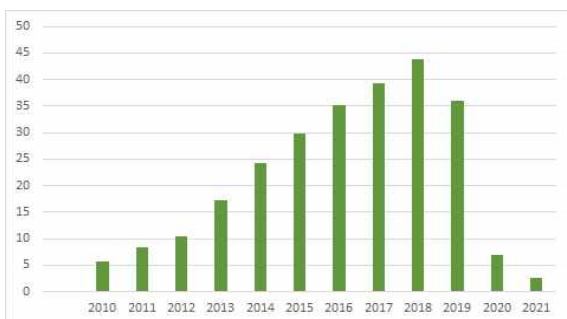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External Resources; Government of Sri Lanka; CBSL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검색일: 2022. 2. 11).

■ 관광산업은 스리랑카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나, 2019년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부진을 겪고 있음.

- 스리랑카의 관광수입은 2018년 역대 최고치인 4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84.5%(6억 8천만 달러)와 94%(2억 6천만 달러)가량 감소함(그림 12 참고).
 - 스리랑카의 GDP 대비 관광수입은 2018년도에 4.9%를 차지하였으나, 테러와 팬데믹 발생 이후 급감하여 2021년에는 0.3%를 기록함.¹⁶⁾
- 관광객 수는 부활절 테러 직후 3만 7,802명(2019년 5월)까지 감소한 이후 같은 해 11월 20만 명대를 회복하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시 감소세를 보임(그림 13 참고).
 - 2021년 스리랑카에 방문한 관광객은 총 19만 4,495명으로 전년대비 61.7% 하락함.

그림 12. 연도별 관광수입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CEIC(검색일: 2022. 1. 26).

그림 13. 월별 방문객 추이

(단위: 만 명)



자료: Sri Lanka Tourism Development Authority(검색일 2022. 1. 26).

16) 스리랑카 GDP는 2018년 879억 달러, 2021년 825억 달러(추정)임(Worldbank, EIU(검색일: 2022. 2. 10)).

- 2021년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시행된 유기농업 정책은 생산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졌으며, 농산품의 수출입 및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침.
 - 2020년 기준 농업은 스리랑카 GDP의 7.4%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3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등 스리랑카 경제 및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¹⁷⁾
 - 2021년 4월 스리랑카 정부는 국민건강, 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살충제, 화학비료 등의 수입 및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유기농 제품으로 대체하는 유기농업 정책을 도입함.¹⁸⁾¹⁹⁾
 - 이후 생산비용 증가 및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일부 농민들은 투입량을 줄이거나 경작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농산품 생산 및 수출입에 영향을 미침(표 3, 표 4 참고).
 - 2021년 10월의 고무 생산 및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26.1%와 12.1% 감소하였으나, 수출가격이 50% 이상 상승하여 320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함.
 - 같은 기간 차의 생산 및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6%와 5.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피화 약세로 인해 달러로 환산 시 수출액은 2.4% 감소함.
 - 2021년 10월 쌀, 밀·옥수수, 설탕 등 필수 식자재의 평균 도매가는 전년동월대비 4%에서 24.6%까지 증가함.
 - 같은 기간 밀·옥수수, 설탕의 평균 수입 가격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6.3%와 27.3% 증가하였으며, 쌀과 밀·옥수수의 수입량은 각각 13%와 113.4% 증가함.
 - 농업계의 지속적인 반발과 시위로 인해 2021년 11월 화학농약 사용 및 수입 제한조치가 해제되었음.²⁰⁾

표 3. 주요 수출품 생산 및 수출(2021년 10월)

구분	단위	품목	2020년 10월	2021년 10월	전년동월대비(%)	
생산	백만 킬로그램	차	23.8	24	0.6	
		고무	6.8	5	-26.1	
수출	수출량	백만 킬로그램	차	23.12	24.34	5.3
			고무	1.27	1.12	-12.1
	수출 금액	백만 루피	차	20,697	22,026	6.4
			고무	441	642	45.6
		백만 달러	차	112.2	109.5	-2.4
			고무	2.4	3.2	33.5

주: 2021년도는 추정치임.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2021), *Monthly Economic Indicators November 2021*.

17)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Government of the U.S.A.(2021. 9. 28), "Sri Lanka - Country Commercial Guide - Agricultural Sector"(검색일: 2022. 1. 26).

18) *The New York Times*(2021. 12. 7), "Sri Lanka's Plunge Into Organic Farming Brings Disasters"(검색일: 2022. 1. 20).

19) 당시 정부는 화학비료 수입에 사용되는 4억 달러가 '국민 삶의 질 향상(to uplift the lives of the people)'에 사용될 수 있음을 강조함(Presidential Secretariat(2021. 4. 22), "Importation of chemical fertilizers will be stopped completely"(검색일: 2022. 1. 26)).

20) *Reuters*(2021. 11. 24), "Sri Lanka rows back on chemical fertiliser ban but yields may not rebound"(검색일: 2022. 1. 26).

표 4. 주요 식료품 가격 및 수입(2021년 10월)

구분	평균 도매가			평균 수입 가격			수입량			
	2020년 10월	2021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2020년 10월	2020년 10월	전년동월 대비	
단위	Rs./kg			US\$/MT			MT'000			
쌀	삼바	109.14	136	24.6	822.82	618.98	-24.8	1.82	2.06	13
	나두	96	117.08	22						
	케쿨루	93	105.44	13.4						
밀·옥수수	-	-	-	247.18	336.83	36.3	97.41	207.9	113.4	
설탕	129.11	134.22	4	429.74	547.23	27.3	76.05	18.25	-76	

주: 삼바(Samba), 나두(Nadu), 케쿨루(Kekulu)는 쌀 품종명임; 2021년도는 추정치.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2021), *Monthly Economic Indicators October 2021*, *Monthly Economic Indicators November 2021*.

■ 아울러 해외송금 유입액 감소,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량 증가도 경제불안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²¹⁾

-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액은 스리랑카의 핵심적인 외화 유입의 원천이나,²²⁾ 2021년 1~11월 송금액은 51억 6천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7.9% 감소해 외환보유고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됨(그림 14 참고).
- 2019년 기준 20만 명 이상의 스리랑카 국민이 해외 근로를 목적으로 이주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용불안 및 해고 등의 사유로 2020년에는 5만 4천여 명으로 대폭 감소(표 5 참고)
- 2020년도 해외송금 유입액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실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과 각국의 봉쇄조치로 쇼핑 및 여행이 제한되면서 늘어난 저축액을 본국에 송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²³⁾

그림 14. 월별 해외송금 유입액 추이

(단위: 만 달러)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2. 1. 26).

표 5. 스리랑카 해외 이주 근로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남자		여자		총계
	명	%	명	%	
2014	190,217	63.26	110,486	36.74	300,703
2015	172,788	65.59	90,655	34.41	263,443
2016	106,306	66.02	82,510	33.98	242,816
2017	139,268	65.59	72,724	34.31	211,992
2018	129,712	61.41	81,499	38.58	211,211
2019	122,257	60.2	80,830	39.8	203,087
2020	32,589	60.49	21,286	39.51	53,875

자료: 스리랑카 해외고용국(검색일: 2022. 1. 26).

-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2021년 1~11월간 공급한 화폐량(M2)은 전년동기대비 20.7% 증가한 10조 2,429억 루피(약 503억 달러)로, 인플레이션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됨(그림 15 참고).²⁴⁾
- 이는 대부분 1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의 급여 지급 및 연금 지출에 사용됨.²⁵⁾

21) *The Diplomat*(2021. 2. 9), "Sri Lanka's Foreign Debt Crisis Could Get Critical in 2021"(검색일: 2022. 1. 25).

22) 2019년 기준 해외송금 유입액은 스리랑카 전체 GDP의 약 8%를 차지함(https://www.cbsl.gov.lk/sites/default/files/cbslweb_documents/publications/annual_report/2020/en/13_Box_04.pdf(검색일: 2022. 1. 27)).

23) EASTASIAFORUM(2021. 1. 28), "How Sri Lankan remittances are defying COVID-19"(검색일: 2022. 1. 28).

24) 스리랑카 중앙은행(2021), *Monthly Economic Indicators November 2021*.

그림 15. 중앙은행의 월별 화폐 공급량 추이

(단위: 백만 루피, %)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검색일: 2022. 2. 3).

3. 전망과 시사점

■ 스리랑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장단기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주요 채권국 및 교역국으로부터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2022년 1월 스리랑카 정부는 약 200만 명에 이르는 소득지원 대상자를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구제방안을 발표함.²⁶⁾
 - 본 구제안은 △밀, 설탕 등 식료품 구매 보조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식료품 및 의약품 세금 일부 면제 △빈곤층을 위한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함.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향후 3년간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법을 도입하고, 수출·관광·송금 활성화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함.²⁷⁾
 - 관광수입을 회복하기 위해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를 면제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2021/22 회계연도에는 약 5억 달러의 관광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²⁸⁾
- 또한 중국, 인도, 이란 등 주요 채권국과 교역국을 대상으로 통화스와프 체결, 부채상환 조건 및 일정 조율 등을 논의하고 있음.
 - 2022년 1월 인도는 스리랑카와 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실시하고, 스리랑카 석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5억 달러 규모의 신용한도(Line of Credit)를 제공함.
 - 스리랑카는 2021년 12월 중국과 15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진행하여 총 31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확보하는 한편, 2022년 1월 중국 측에 부채상환 재조정을 요청함.
 - 2021년 12월 스리랑카는 이란에 석유 수입대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2억 5천만 달러를 매달 500만 달러

25) *NikkeiAsia*(2021. 10. 27), "Sri Lanka's economy seen as a 'ticking time bomb'"(검색일: 2022. 1. 25).

26) *Bloomberg*(2021. 1. 4), "Sri Lanka unveils 1 billion relief package as food prices surge"(검색일: 2022. 1. 25).

27) *Reuters*(2021. 1. 18), "Sri Lanka looking to attract forex through new policies"(검색일: 2022. 1. 25).

28) 스리랑카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차년도 3월 31일까지임.

상당의 차(茶)로 분할 상납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란은 이를 수용함.²⁹⁾³⁰⁾

- 이외에도 스리랑카 정부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수입을 제한하고, 해외공관을 폐쇄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함.
- 2021년 외화 유출 방지를 위해 자동차, 식용유 및 향신료 등의 수입을 제한 및 금지하는 한편, 2022년 1월부터 나이지리아, 독일, 키프로스 등 3개의 해외공관을 잠정적으로 폐쇄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관광객이 호텔에서 외국 화폐로만 결제할 수 있도록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힘.³¹⁾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의 경제불안은 구조적인 문제에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 충격이 겹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즉각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스리랑카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³²⁾ △대외채무 증가 △루피화 약세 등의 문제가 지속됨.
- 현지 전문가들은 자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영기업 개혁, 세제 개혁, 시장주도의 루피화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함.³³⁾
- 관광업 침체 및 해외송금 유입액 감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동향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므로, 정부의 관련 정책 시행만으로 신속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화학비료의 사용 및 수입 금지를 철폐하였으나, 농업 생산성 회복과 국내 식료품 물가 및 농산물 수출 안정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 낮은 경제성장률과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추가적인 국제발행 혹은 FDI 유입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IMF 긴급구제 요청을 제안했으나,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부 장관이 현재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언급함.

■ 한국은 ODA를 바탕으로 스리랑카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온 가운데, 스리랑카 경제 동향을 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스리랑카 진출 및 투자 기업을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의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개발 및 다변화 △인적 역량 강화 △농업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리랑카와의 협력을 모색함으로써 스리랑카의 장기적인 경제성장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스리랑카는 한국의 ODA 중점협력국으로 2022년 한국의 대스리랑카 ODA 확정액은 967억 원이며,³⁴⁾ 이는 교통(481억 원), 물관리 및 보건위생(265억 원), 교육(136억 원), 지역개발(41억 원) 등 다양한 분

29) BBC(2021. 12. 22), "Sri Lanka plans to pay off Iran oil debt with tea"(검색일: 2022. 1. 27).

30) The Times of Israel(2021. 12. 24), "Iran to accept payment in tea for Sri Lankan oil debt"(검색일: 2022. 2. 4).

31) Economynext(2022. 1. 22), "Sri Lanka tourists hotels asked to take payments only in foreign exchange"(검색일: 2022. 1. 27).

32) 국제수지 악화로 인해 IMF로부터 2009년과 2015년 각각 26억 달러와 15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공여받은 바 있음.

33) Reuters(2022. 1. 18), "Sri Lanka looking to attract forex through new policies"(검색일: 2022. 1. 25).

34) 이는 2021년 확정액인 717억 원 대비 35% 증가한 금액임.

야에 할당되어 있음.³⁵⁾

- 우리 정부는 스리랑카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2021년 7월과 10월 각각 23만 달러와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방역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한국은 스리랑카 내에서 EDCF 자금을 통해 도로, 직업훈련 센터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2021년 5억 달러 한도의 ‘한-스리랑카 2020~2022년 EDCF 차관에 대한 기본약정’을 체결함.
- 2020년 기준 스리랑카에는 건설업, 제조업 등 16개의 한국 기업과 기관이 진출해 있으며,³⁶⁾ 2021년 200만 달러의 대스리랑카 직접투자가 진행된 가운데, 스리랑카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한국의 대스리랑카 수출은 전년대비 67.3% 증가한 2억 8,800만 달러이고, 수입은 27.8% 증가한 1억 4,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함.³⁷⁾
- 2021년 11월 기준 주요 수출품은 합성고무, 합성수지, 윤활유, 아연도강판, 편직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편직제의류, 나프타, 직물제의류, 기타 식물성재료, 의류·액세서리 등임. **KIEP**

35) 관계부처합동(2022. 1. 27),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36) KOTRA,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전 세계)」.

37) 2019년 한국의 대스리랑카 수출은 2억 3,500만 달러이고 수입은 1억 달러임(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22. 2. 14)).